

(목 차)

1. 서 론
2. e-러닝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3. 양질의 교육용 콘텐츠 제공 및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성 지원
4. 부족한 학술정보 획득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식정보공유체계 구축
5. NEIS의 확대·개편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발전

1. 서 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물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전후 우리나라의 기적같은 경제부흥을 이끈 가장 큰 요인이긴 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특히 사교육 시장의 급격한 팽창은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1996년 교육개혁안이 발표되고, 2000년 제7차 교육과정안이 발표된 이래 지금까지도 교육개혁은 정부 정책의 가장 큰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 전 부분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세계인들이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어 누구와도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단 한번의 클릭으로 엄청난 양의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정보의 습득·개발

· 가공·유통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도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 요구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인재상 대두는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직면한 정부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중 e-러닝이 가장 핵심적인 대안으로 부상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해야 할 일 - 초·중등학교 교원의 처우개선, 교육환경 개선, 저소득층 지원강화, 교육 인프라 개선 등 - 은 많은 교육개혁의 딜레마 속에서, 장기 교육개혁 로드맵에 의거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파급력이 큰 e-러닝을 선택한 것이다.

e-러닝은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서비스되는 교수-학습 방법의 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e-러닝은 초·중등 교육 측면에서는 교육 내용·방법 혁신과 기회 제공을, 고등교육 측면에서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차원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상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학습체제를 구현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의 확대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및 기타 연관 지식산업 분야의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여러 교육 선진국들이 e-러닝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다양하고도 심도 깊은 효과성에 기인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교육 예산 중 60%를 e-러닝 육성에 투여할 정도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은 이처럼 전세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e-러닝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99년 설립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다. 지금까지 KERIS는 1단계 교육정보화 정책을 통해 세계 수준의 교육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2단계 교육정보화 발전방안을 근간으로 에듀넷을 통해 ICT활용 교수-학습 자료와 방법을 보급하는 등 e-러닝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리고 2004년 올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유관기관들과 함께, 각종 e-러닝 사업의 중심에서 정책 개발 및 사업 진행을 주도해왔다.

KERIS는 앞으로도 e-러닝을 통한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목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핵심역량 극대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고객지향적 마인드의 실천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람과 교육 현장 중심의 e-러닝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교육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e-러닝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KERIS는 국가 e-러닝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세계적인 e-러닝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할과

전문성 강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세계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e-러닝 국제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e-러닝 사업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e-러닝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관리체제를 확립하여 학교 현장 및 서비스 수혜자 중심의 e-러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e-러닝의 효율성 제고 및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최적의 교수-학습 모델과 HRD 모델을 개발·보급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실효성을 지닌 정책 진행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현장적용연구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우리나라 e-러닝의 중심점이 되어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국가 e-러닝 정책 및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3. 양질의 교육용 콘텐츠 제공 및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성 지원

KERIS는 학생들에게 학습선택권과 맞춤형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과 교사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교를 하나의 학습 커뮤니티화 하는 등 강화된 학습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에는 에듀넷을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으로 개편하여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양질의 교육정보를 One-stop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지식 및 인적 자원 교류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e-러닝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 및 유관기관 간 협력관계를 확립하여 각종 콘텐츠 개발 및 확보,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은 초·중등교육의 e-러닝 기반 교수-학습방법 혁신, 콘텐츠 개발 및 공유·유통 활성화, 사이버가정학습체제 도입 및 확산의 매개체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 특성, 수준, 요구를 반

영한 목표 설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성과관리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4. 부족한 학술정보 획득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식정보공유체제 구축

우리나라 대학의 학술정보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장서구입비가 하버드대학 장서구입비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KERIS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대학도서관을 비롯하여 각종 연구기관의 도서관 등을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웹상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확보할 수 있는 지식정보공유체제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도서관 모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으며, 향후 해외 및 민간 학술정보 연계 체제를 강화하여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연구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연구 환경 격차해소를 위해 국외 고급학술정보 라이선스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범국가적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One-stop, 맞춤형 PUSH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이용자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e-러닝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인적자원개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NEIS의 확대·개편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발전

KERIS는 NEIS의 조기 정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 끊임없이 대화 창구를 열어가고 있으며,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관리시스템(PMS)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개선요구의 즉각 이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수준에 머물고

있는 NEIS를 종합적인 교육정보서비스로 확대·발전시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관리하고 학생개개인에 대한 학습 진단과 처방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NEIS를 기존의 학습채널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다.

KERIS는 앞으로도 최적의 e-러닝 정책 및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단소리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쓴소리가 약이 됨을 알고, 이를 위해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저자약력



황 대 준

경북대 공대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컴퓨터 과학 전공으로 석, 박사 과정을 수료함. 한남대학교 부교수, 미국MIT,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교원 교수 및 초빙 연구원을 거쳐 열린 사이버대학 기획운영위원장 및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처장 및 입학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으로 재직 중임.

저서: C++Programming(공저), 사이트 미디어, 1999

웹 기반 교육. 교육 과학서, 2000